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.1.22(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1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9. 1. 21(월) | 담당부서 |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<br>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정경록 과장(044-203-5920)<br>강감찬 과장(044-203-5620) | 담 당 자 | 김애경 사무관(044-203-5923)<br>손효정 사무관(044-203-5625) |

#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, WTO 개혁 및 전자상거래 협상 출범 논의 등을 위해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(1.24~25) 참석

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.24.(목)~25.(금)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(WTO)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.

○ 이 회의는 매년 세계경제포럼(일명 '다보스 포럼') 계기에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주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기구의 체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서,

○ 올해는 이 회의에 더불어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규모 통상장관회의,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를 위한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도 병행 개최될 예정이다.

□ 김 본부장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,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'18년 국제 다자통상 환경을 평가하고 올해 이슈를 전망하는 한편,

○ 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하며, 방안 마련을 위한 회원국간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피력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디지털 무역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규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규범 논의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으로, 이와 관련한 협상 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로 했다.

□ 한편, 김 본부장은 동 회의 및 다보스 포럼(1.22~25)에 참석하는 주요국 통상장관과의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.

○ 특히, 브렉시트(Brexit)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, 리암 폭스(Liam Fox) 영국 국제무역부장관과의 면담을 개최하여 브렉시트 상황에서의 한영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,

○ 세실리아 말스트롬(Cecilia Malmström) 유럽연합(EU) 통상담당 집행위원과는 유럽연합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등 통상현안을, 짐 카(Jim Carr) 캐나다 외교부 통상다변화 장관과는 캐나다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포함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.